

Press Release

이베코그룹, 현대자동차와 상용차 부문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

[2022년 3월 7일 이탈리아 토리노, 대한민국 서울]

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그룹(IVECO Group)이 지난 4일(금), 현대자동차와 상용차 부문 협력을 목표로, 공동 기술 개발 및 상호 공급 기회 탐색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이날 협약식에는 게리트 막스(Gerrit Marx) 이베코그룹 최고경영자(CEO)와 마르코 리카르도(Marco Liccardo) 이베코그룹 최고 기술 및 디지털 책임자(CT&DO, Chief Technology & Digital Officer)를 비롯,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마틴 자일링어(Martin Zeilinger) 상용차개발담당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본 협약은 양사가 글로벌 상용차 부문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.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▲전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·부품·시스템 등의 교차 사용 ▲신기술·플랫폼 공동 개발/공유 등 상용차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업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다. 아울러 부품, 시스템 등의 공동 구매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도 타진한다.

이베코그룹은 이번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이 양사 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급변하는 상용차 시장에서 혁신적인 솔루션 창출을 통해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.

IVECO

이베코는 이탈리아 상용차 기업 Iveco Group N.V 산하의 브랜드로, 소/중/대형 상용차량, 오프로드 트럭, 다목적 트럭 등 광범위한 분야의 차량을 설계 및 제조, 판매하고 있다.

이베코는 차량 총중량 기준 ▲3.3~7.2톤 소형상용차 데일리(Daily), ▲6~19톤 중형상용차 유로카고(Eurocargo), ▲16톤 이상 대형 트럭터 S-WAY, ▲16톤 이상 오프로드용 덤프 트럭 T-WAY, ▲16톤 이상 온로드와 오프로드 운송을 모두 충족하는 X-WAY 등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. 이 외에도 다목적 트럭과 특수차량을 제조하는 이베코 아스트라(IVECO Astra)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.

전 세계 약 21,0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, 유럽과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중남미 등 7 개국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다. 160 개국 이상 4,200 여곳의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.

자료문의

이베코그룹코리아
드밀커뮤니케이션

조관주 상무 (010-6784-0588 / kwaju.cho@iveco.com)

임봉선 실장 (010-8923-5635 / debbie@demillpr.com)

황현수 과장 (010-9879-9902 / soo@demillpr.com)